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공경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어쨌든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 법공양 페이지

# 한발짝 떼고 생각 안하면 그게 무심

### 15면에서 계속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대로 화두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응어! 하면 벌써 이것이 화두다. 화두를 어느 큰스님이 주신다 해도 그거를 이룸으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라. 이룸으로 받는다 면 만날 들고 돌아다녀야 하고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대로 돌아다니는 거다. 자기 내면에 내면처와 또 주신 분의 내면처가 마음은 그 체가 없기 때문에 들을 한데 합쳐도 그냥 하나의 주인공이요. 만물을 갖다가 하나로 놓으면 그것은 일불일 뿐이요. 부처님 안에 가서 받고 기도하고 이럴 때, 여기저기 신중단이나, 칠성각이나, 독성각이나 또는 지성각이나, 관세음이나 뭐 꼭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내가 필요한 대로 나누어 응해 주신다는 것을요. 이것이 아리송하잖아 한 가정을 보세요. 아버지가 왔다가, 남편이 왔다가, 아들이 왔다가, 사위가 왔다가, 형이 왔다가, 아우가 왔다가, 친구가 왔다가 이렇게 바뀌지요? 그거와 같은 거죠. 아들 때는 약사가 돼주고, 괴로울 때에는 관세음이라 돼주고, 또 명이 짧다하면 칠성이 돼주고, 좋은데로 못갔다 하면 지장이 돼주고 이렇게 항상 나투죠. 그러니 온통 뒤죽박죽을 만들어서 부처님한테 가서 빌고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내 주인공에 모든 것을, 아프면 아프다고 관하면은 그것이 바로 약사로 화해서 나누어 주고 또 내가 가난하고 무슨 일이 생겨서 거기다 관하면 그대로 관세음보살이 돼주고, 공부할 때 괴로움 따위 있어서 이거 배울 때 있고, 저거 배울 때 있고 그런 거지. 한데다 놓고 뒤죽박죽을 해서 배우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대로 화해서 그렇게 바꾸어준다 이거예요. 바꾸어주는 게 아니라 바꾸어준다 이겁니다. 우리는 본래 자동적인 컴퓨터기 때문에, 대뇌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살고 있는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도요. 생각이 거기 들어가는데 안 되겠습니까? 옹공로에 그냥 모든 걸 갖다 넣으면 저절로 재성이 돼나가는 거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대성인도 모두 그랬어요. 못났든 잘났든 너 먼저 알아야 이 세상에 설리를 알 수 있느냐. 그러니 가난해서 못배운다, 바빠서 못배운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죠. 왓선·좌선·행선·참선 이러는데 진짜 참선이라는 것은, 일을 하거나 놀거나 앉거나 자거나 할 때에 그대로 하는게 참선이거든요. 앉아서 하는 것만 좌선이라고 하는데 앉아서 관하는 거나, 일할 때에 관하는 거나, 섰을 때에 관하는 거나, 누웠을 때에 관하는 거나 뭐이 다른 게 있습니까? 근본에서 나오는 건 한자리지 두자리가 아니거든요. 몸뚱이는 이리 움직여지고 저리 움직여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움직여지는 자체도 그 마음 근본에서 나오는 거니까 마음 근본에서 앉았든지, 섰든지, 일하든지 그 건 마찬가지로 이거죠. 그래서 어떤 거든 참선이라고 이름해서 부른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달이다' 이런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졌다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달이 된다면, 내 마음이 이 달 속에 들어가서 내가 달이 된다면 내 마음이 달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남을 해치지 않고 또 잘못되지 않게 할 수 있죠.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으니까요. 내가

또 태양이 된다 이럴 땐 내가 태양으로서 막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태양이 된다면 태양이 타버릴 리도 없고 부패될 일도 없지 않아요? 그죠?

또 지구 역시 그래요. 모두가 오존층이 뚫어졌다, 에너지가 다 없어졌다 이러더라도 내가 만약에 지구가 된다면, 이 허공에 에너지가 꼭 차 있는데 그걸 자동적으로 끌어들이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이 문제를 모두 놓고 볼 때에 제일 우리가 귀중한 것이 무엇이나? 우리들의 금같은 마음이에요. 굳세고 금같은 마음이에요. 빛나고 굳세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 하나가 우주천하를 덮고도 남아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남아요. 받치고, 덮고, 굴리고 해도 남아요. 저 스님은 영봉하게 저렇게 말을 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는 없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귀가 잔뜩 먹은 사람한테 '아! 지금 천둥이 쳤다' 이랬다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천둥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귀가 뚫린 사람은 천둥치는 걸 들었죠. 그래 소리는 들었으나 쉴 수도 없고 갖다가 보일 수도 없는 것이 천둥이고 종소리죠. 모두가 그래요. 그러듯이 그렇게 갖다가 쉴 수도 없고, 갖다 줄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지만 분명 있어요. 갖은

한가지가 풀리려면 여러 사람들한테서 풀려야 하니까, 좀 더디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그러죠. 그것이 모두 여러분이 벌어놓은 문제에 따라서 더디고 빠르기가 있는 거니, 그것을 '내가 주인공을 이렇게 찾았는데도 안되더라' 이러진 말아요.

왜? 안돼도 그놈이 하는 거고 돼도 그놈이 하는 거니까 누구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진짜로 통신이 되게끔 해야 대뇌로 통신이 돼서, 대뇌에서 이 사대로 하달을 해서 다 이렇게 작용을 해주고, 때로는 나가서 할 일이 있으면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보살행을 하죠. 그래서 응신으로 화해 나가서 전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해결을 하죠. 찰나에 들고 찰나에 나고 하죠.

그러니 모든 게 자기 마음먹기에 달린 거고 자기가 얼마만큼 자기 뿌리를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기가 어디서 생각했소? 자기의 영원한 근본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정자 난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종자가 없는데 어떻게 낳겠소? 땅이 좋고 물이 좋다 하더라도 씨가 없는데 어떻게 그 씨를 바라겠소? 그러듯이 우리가 이 마음의 근본 종자의 주장자가 없다면 집도 비고 아무것도 날 게 없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오히려 자꾸 차원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통글게 되는 거니까 감사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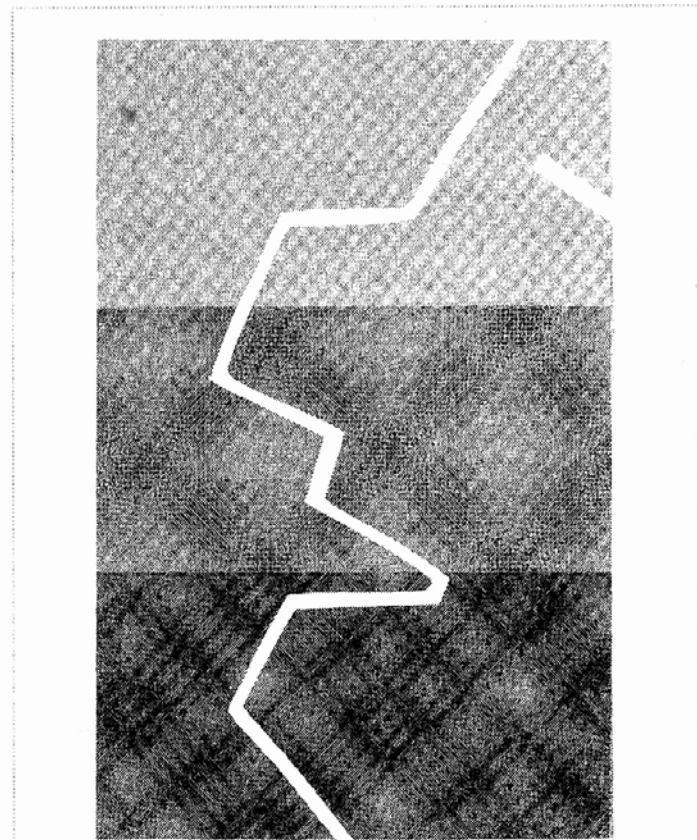


그림 최주현

## 나무가 뿌리에서 양분 흡수하듯 한마음 믿을때 태양같은 힘 생겨

소리 다 하게 하고, 가지각색으로 움직여지게 하고, 가지각색으로 배우게 하고, 가지각색으로 먹게 하고 이거는 뭐 말로는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마음이라는게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광대하고 볼 수 있죠.

질문1: 대구 지원에서 온 유은숙입니다. 여기에 모인 전국 청년 법우님들과 함께 한자리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큰스님, 주인공 법을 이끌어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큰스님 사랑합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어떠한 경계가 다가왔을 때에 나름대로는 믿고 맡겨놓는다고 애를 씁니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이상황으로서의 최선이라고 하면서 주인공에 맡기게 하거나 기다보면 해결이 되고 감사의 회향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금 돌아보면 그때 상황이 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다가오는 경계의 인연 속에서 최선이라고 믿었던 그때의 제 그릇이 시간이 흐른 뒤에 조금은 커진 그릇으로 지나간 경계를 돌아보니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지요? 스님의 따스한 가르침 바랍니다.

스님: 어찌해도 과거고 한시간 전도 과거듯이,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은 그때는 잘했어고 생각이 하고 했어고, 조금 지내고 보면 '아! 그거 조금 미흡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차원이 높아지는 집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속에서 자꾸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걱정할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조그마한 걸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체험하는 건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얽히고 설리게 일을 벌여놓으면

질문2: 안양 본원 이현석입니다. 이 자리에서 큰스님을 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으로 푼 천수경 가운데서 '모습없는 일체 영령들도 물질과 둘 아님을 알게 하소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알듯 하면서도 정확히 어떤 의미이며 왜 그렇게 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스님: 모습없는 의식이라면 스무개 백개, 천개 이 허공에 꼭 찔라 하더라도 내가 한번 마음을 쓰면 그 한마음이지 두 마음도 아니야. 그지? 그러니 한마음 되게 하소서 한 거 아니야? 그거는 뭐냐하면 '한마음 되게 하소서' 하면 보는 사람이 그거를 열면 알아채서 '너가 그렇게 해라' 이 소리거든. '내 마음을 빨리 지혜롭게 하게 하소서' 할 때도 자기가 그렇게 해라 이 소리지, 상대방에게가 기대고 하는게 아니라 말이야.

어떤 집은 이사를 갔는데 영계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난리들을 벌이고 뭐 사람이 자꾸 죽어 나간다고 뭐 어쩌다 이러거든. 그런데 그게 지혜가 모자라서 그런 거야. 한생각이면 그냥 없어질 걸, 생각해 봐주세요. '놓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깨닫고 놓지 않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약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전부 내가 된다면 내 마음의 주인공에 한데 놓는다면 그냥 내가 돼 버리는 거야. 내가 되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내가 돼 버리니까.

그런데서 스스로서 자동적으로 재성이 돼서 여기서 나가도 여기는 줄지 않는다는 얘기가야.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 영이라고 생각해보. 영이 영한테 들어왔다가 영이 영대로 또 나가서 재성이 돼서 쌍이 된다 하면은 그것 참 좋은 일이지, 재성을 시키니 좋은 일이고, 그 집에 그런

우환이 없어지게 하니 좋은 일이고, 그 도리를 아니까 떳떳하니까 이 세상에 주인이 되니 좋은 일이고, 진짜 부처가 되니 좋은 일이고, 모두가 그 얼마나 좋은 일이야 글썽.

그런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온 가정이 그냥 뭐 죽을통 살통 하거든. 그러니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이 공부를 잘한다면 그 가정은 아주 편안하게 나갈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 내가 이끌어 가는 대로만 꼭 부러지게 잘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 대없는 으뜸한 자유인이 될 거다 이 소리지.

그나 그 뿐인가, 시식을 하느니 무슨 뉘를 하느니 하고 그냥 온종일 툭딱거리고 또 무당집에 안가는 사람 없지. 그러니 신세가 얼마나 고달퍼? 지금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말이지. 참 공평치 않게 살아 모두,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 걸 그렇게들 괴롭게 사니 글썽...

질문3: 저는 대구 지원에서 온 배완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자리 해주신데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氣)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무엇인지, 또 마음과 기의 관계란 무엇인지 여기 대해서 우선 일차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스님: 기라는 것은 마음에 따라서 오는 따라지야. 그런, 마음에 따라지라고. 그런 마음먹기에 달렸어. 예를 들어서 내가 노곤하고 일어날 기운도 없다 그럴 때 '아! 의욕이 나지않고 왜 이렇게 기가 푹 떨어지게 만들어' 하고선 별책 읽어낸다면 그냥 의욕이 생기고 기가 생기는 거지. 기라는 것은 이룸이야. 기운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거는 기라고 이름을 지어놓고는 욕심이 많아지고 뭐 단전호흡을 해서 기를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온통 야단이나 정수리로 화가 미치고 귀로 화가 미치고 등으로 화가 미치고, 온 몸뚱이로 화가 미쳐서 병들이 나가고 가장 파탄이 나고 그러지.

도대체 기가 뭤데? 정맥 동맥이 잘 돌아가고 핏줄이 잘 돌아가고 하면은 그대

로 그냥 기가 잘 돌아가는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지. 마음에 달렸다 이 소리가 그것도. 전후사가 다 마음에 달린 거야. 차가 온행을 하려면 바퀴를 켜 그 중심과 그 엔진이 없으면 그건 아예 굴러갈 수도 없지. 기를 떨어지면 기를 넣으면 되고 말이지. 그게 기를과 같은 거지. 내 몸뚱이 차가 기를이 없게 해서 안 되잖아? 그러니 항상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관하면서 살아야겠지.

지 금 그 뜻은 열골에도 기가 있어. 기는 편에서 오는게 아니고 편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야. 단, 자기를 진짜로, 진짜로 믿는다면, 그나이야. 저 나무는 내가 너를 믿는다 안믿는다고 없이 자기 뿌리이니가 그냥 무조건 믿지. 그러면 뿌리에서는 지분이라든가, 수분이 라든가, 철분등 모든 것을 흡수해서 그냥 올려보내는 거야.

우리가 한마음이라는 것을 믿고 진짜로 내 뿌리를 믿는다면 그 믿는 마음이 즉 태양력과 공기력을 내려보내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라는 이름을 누누히 생각 안해도 그냥 저절로 기운이 생긴다 이 소리지.

질문3: 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단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할 것 같습니. 고대로 전해오는 어느 책에 보면 몸 공부와 마음 공부라고 기 공부 이렇게 삼함이 일체로 이루어져야만 완성자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 여러분이 지금 배꼽 밑으로 해서 기를 들인다고 합니다. 무당이 귀신을 몰아낸 놚지 내보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일이 터지게 돼 있거든. 그것처럼 기를 모아낸 놚지 풀지를 못해. 옛날엔 너무 몸이 부실하고 그러니까는 그 기법을 가르쳐서 몸을 풀기 위해서 가르친 거지, 그것이 뭐 기에다가 착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야. 몸이 쪼뽕뽕하고 아프면 그렇게 해서 약씩 풀었지 그걸 넣어드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 울이 있으면은 전부 그 울 안에 있듯이 한마음 안에 있으면 그 마음으로서 급하면 대처할 수 있는 거지. 기를 왜 미리 참고에다가 잔뜩 갖다놓고 탄 거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놔? 그래 가지고는 오히려 병을 얻게 되지. 생각해 봐. 먹을 때는 그릇에다가 담아서 먹고 그릇을 항상 씻어서 치우지? 씻어 놔기 때문에 다음에 먹을 때는 또 그 그릇을 꺼내서 담지? 만약에 그릇에다가 항상 뭘 담아 놓으면 그 그릇엔 나중에 무엇을 담을래도 쓸 수가 없지? 그거와 똑같은 얘기가야. 그러니까 기를 모을 생각이 아예 하지 말아. 급하면 저절로 기가 다 생기게 돼 있으니까.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저절로 기가 생기게 돼 있어. 자동적이지. 그걸 믿어야 돼.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 봤지 뭐. 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탄기탄하고 기가 없으니까 기를 넣어야지 어쩌고 하면 '허, 너 실컷 해봐라' 속에서 그럴 거라고. 아마, 니가 너라고 이렇게 자칭해서 야단법석인데 니가 있으면 니가 알아서 해봐라.' 그리고는 자기 참지기는 아마 등한시 할 걸?

질문4: 무심이란 마음이 없다 라고 말로써 풀이할 수 있는데, 무심의 상태란 무엇이며, 또한 무엇인지 스님의 뜻을 받자고요 하십니까.

스님: 허... 무심이란 건 지금 여러분도 전부 무심이야. 왜냐? 말하는 것도 고정된 게 없지,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지, 만났고 고정됨이 없지, 먹는 것도 고정된 거 없지, 자는 것도 고정된 몸을 움직여 거리지 않고 자는 게 없지, 그냥 하나도 고정된 게 없지. 일거수 일투족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대로 마음쓰고 그대로 무심으로 왔다갔다. 그냥 오고 가고, 그냥 보고 듣고 이렇게 그냥 찰나찰나 넘어가. 찰나찰나 그냥, 돌아가. 그게 무심이야. 그대로 무심이라고. 왜 괜히 붙들고 무심이나 유심이나 하느냐고. 유심도 무심도 둘이 아니란 얘기가야. 알고 보게 되면 우리가 힘이 없이 그냥 행을 하는 거고, 말하는 것도 힘이 없이 말을 하고, 듣는 것도 힘이 없이 듣고 있고, 우리가 그대로 여여하게 그냥 사는 건데, 몰라서 전부 마음으로 붙들고 놓여지고 온통 야단들이지. 그냥 무심이 따로 없어. 우리가 한발짝 떼어놓고 그걸 생각을 안하면 무심이야. 한발짝 떼어놓고 뒤 발자국을 생각을 안하고 그냥 앞으로만 가면 돼.

그런데 만약에 한 발자국 떼어냈는데 그 뒤 발자국이 금이라고 한다면 돌아다 보게 되잖아. '아이고! 저놈의 금을 내가 밟았는데 금을 내가 가져야겠다' 한다면 한발짝도 걸을 수가 없지. 그런데 아까 저기서 올라올 때 그냥 무심코 걸어서 올라왔지. 내 뒤 발자국이 어떻게 떼어놨나 저렇게 떼어놨나 하고 걸어도 지 없었지? 그런데 보는 것도 무심히 보지 저게 어떤가 하고 미리 생각을 하고 보지 않지? 듣는 것도 그래. 미리 생각하고 듣는 게 없어. 듣고 나서 판단이 되지.

그러니까 무심이야 그냥, 무심! 왜 그냥 여려한 것을 몰라? 반야심경에도 그렇게 해놔지 않아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여여하나라' 하고 말이지. '색도 공이요 공이 색이 아니라, 그대로 고정됨이 없으니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무심이라는 여려한 도리만 알면 그냥 무심이야 그냥 무심도야. 좀 잘 좀 생각해 봐 응? 허허하. 여러분이 조금조금씩 자꾸 체험을 해야만 진짜로 믿어지죠. 공부하는데는 뒤로 몰려서지 말아요. 제발!

스님: 여러분이 지금 배꼽 밑으로 해서 기를 들인다고 합니다. 무당이 귀신을 몰아낸 놚지 내보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일이 터지게 돼 있거든. 그것처럼 기를 모아낸 놚지 풀지를 못해. 옛날엔 너무 몸이 부실하고 그러니까는 그 기법을 가르쳐서 몸을 풀기 위해서 가르친 거지, 그것이 뭐 기에다가 착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야. 몸이 쪼뽕뽕하고 아프면 그렇게 해서 약씩 풀었지 그걸 넣어드는 게 아니거든.

\*위 법문은 1995년 11월 5일 전국청년연합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276호 '길을 묻는 이에게' 법문중 '부와 자가 상봉한다는 뜻'의 답변내용에 '그 체험 하나' 뒤에 '나를 통해서 감응이 오게되고 자신의 부를 진정으로 만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가 빠졌기에 바로잡습니다.

기쁨은 안목을 닦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어(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이루**